

“성추행때 너는 왜 안 피했냐?” ‘키마이라’ 제작진 또다른 논란

드라마 ‘키마이라’ 제작 도중 벌어진 스태프 성추행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해 제작사 제이에스픽처스가 안일하게 대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작사는 17일 외주 조연출 A씨가 스크립터 B씨를 성추행하고, 제작사 소속 제작부 연출자 C씨가 B씨에 대해 언어로 2차 가해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B씨가 6월24일 스태프 회식 자리에서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이달 13일 제작진에서 떠난 사실이 15일 뒤늦게 알려졌다. 제작사는 “A씨에 대한 책임을 묻고 퇴사 조치했다”며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하루 만인 16일 B씨가 C씨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왜 피하지 않았느냐, 피하지 않은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며 2차 가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제작사는 성추행 사건만 파악했을 뿐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도 밝혀졌다. 특히 제작사 측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C씨의 연락처를 취재진에 전달했다. 제작 관련 전담을 담당하는 C씨가 현장에 있었기에 그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었지만 이는 사태 전반을 은폐,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았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관련 사실을 뒤늦게, 그것도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린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했음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일단 C씨가 제작에서 손을 떼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계자는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초지종을 파악한 뒤 해고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정우성, tvN ‘삼시세끼-여자편’ 출연



정우성

배우 정우성이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에 출연한다. 정우성은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정선에서 ‘삼시세끼-여자편’(산촌편) 촬영에 게스트로 참여해 출연자인 염정아·윤세아·박소담과 함께 했다. 세 배우 사이에서 ‘청일집’인 그의 모습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다.

‘강제추행 혐의’ 이민우 검찰에 송치



이민우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0)에 대해 경찰이 1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우는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20대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민우는 추행이 아니며 “작은 해프닝”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팬미팅에도 이번 사건의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MBC 드라마 ‘봄밤’ 찍고 한결 더 성숙해진 김준한

“괴로운 사랑을 해 봤기에 권기석처럼 못해요”

(‘봄밤’ 극중 역)

‘봄밤’은 내 연기인생에 터닝포인트 완벽함 집착...이제 내려놓는법 배워 가져연기 하지않는 철학 지켜나갈 것



이준익 감독의 ‘박열’ 속 일본 검사로 낮익은 김준한은 “가짜로 연기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버리지 않고 있다. MBC ‘봄밤’ 속 활약을 그래서 더욱 빛나 보인다. 사진제공 | 씨엘엔컴퍼니

“‘봄밤’을 하고 나서야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던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연기자 김준한(36)에게 11일 종영한 MBC 드라마 ‘봄밤’은 “일종의 전환점”이었다. 완벽해야만 완성된다고 여겼던 연기 안에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우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가 연기자로서 한 뼘 더 성장한 배경에는 ‘봄밤’에서 호흡을 맞춘 베테랑 연출자 안판석 PD의 힘이 작용했다. 김준한은 ‘봄밤’에서 전 연인 한지민에 집착하는 권기석 역을 소화했다. 한지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갖은 애를 쓴 끝에 드라마 애시청자 사이에서는 “집착남”으로도 불렸다. 16일 서울시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준한은 이에 “나 또한 과거에 서툰고 괴로운 사랑을 해봤기에 비틀

린 집착이 조금은 이해가 간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실제의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사랑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

진득한 멜로를 연기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연기에 푹 빠져 연애를 못 하고 있

다”고 고백했다. “완전무결한 연기를 해 내겠다 욕심” 때문에 심적 여유가 좁아져 생기지 않은 탓이다. 스스로에 엄격했던 그는 “반복 없이 찍을 것만 찍는” 안판석 PD의 촬영 방식을 통해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김준한은 “현장에서 스스로 ‘부족하지 않을까’ 의심한 장면마저 작품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안 PD의 교훈은 삶에 대한 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준한은 “전엔 작은 실수들에 겁을 냈지만 이제 그저 무탈하게 살면 그만이란 생각”이라며 “평소엔 재미있게, 일할 때에는 치열하게 사는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한은 연기자로 대중에 얼굴을 알렸지만 그룹 이지(izi)의 멤버로 2005년 데뷔했다. 노래 ‘음급실’로 유명한 밴드의 드러머였던 그는 2011년 몇몇 단편영화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전향했다. 김준한은 “훗날 ‘내가 연기 했으면 잘했을 텐데’ 하는 비겁한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회상했다. 또 “음악을 할 때에는 공연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었지만 연기를 하

면서 그것이 확 걸린 기분이 들었다”며 “비록 연기자로서 갈 길이 멀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즐겁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연기에 뛰어든 김준한은 약 30편의 단편영화를 거쳐 2017년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로 빛을 봤다. 영화 ‘허스토리’,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MBC ‘시간’ 등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확실한 성장세를 걷고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준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며 “전작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는데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거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뿌듯해했다.

연기자로서는 “가짜로 연기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지키고 싶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질타하고 배척하는 인물일지라도 연기를 하는 나 자신은 역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연기자로서 의무이자 책무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준한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삶을 표현하고 싶다. 그렇기에 어떤 작품을 만날지 기대된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길 것”이라고 마음을 다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주연으로 우뚝 선 아이돌그룹 연기자 2인

얼굴천재 차은우 “외모보단 연기로 인정받을 것”

MBC 수목극 ‘신입사관 구해령’ 왕자 드라마 데뷔 2년만에 사극 주인공까지



차은우

가수 겸 연기자 차은우는 2017년 KBS 2TV ‘최고의 한방’으로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뒤 이제 어엿한 주역으로 떠올랐다.

차은우는 17일 방송을 시작한 MBC 수목드라마 ‘신입사관 구해령’을 통해 주연 자리를 꿰찼다.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이기도 한 차은우는 연예계 안팎의 시선을 모으며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과시할 기회를 얻었다. 그 스스로도 이번 작품을 통해 연기자로서 입지를 제대로 다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신입사관 구해령’은 조선시대 첫 여자사관 구해령의 이야기를 담는다. 차은우는 궁궐에 갇혀 사는 왕자 역을 연기한다. 여주인공 신세경과 호흡을 맞추는 그는 주연으로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 하지만 그는 첫 방송을 앞두고 이날 오후 서울시 마

포구 상암 MBC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주연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놓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부담감을 지워야 더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짧은 연기 경력 속에서 사극을 경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많았다고 그는 고백했다. 차은우는 “연출자 강일수 PD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사극 대사 화법 등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를 주연으로 발탁한 강 PD는 “차은우를 보자마자 ‘축이 왔다’며 ‘기대대로 그가 캐릭터를 만족스럽게 소화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자신의 외모에 가려진 실력을 이번엔 제대로 드러내겠다는 포부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외모에 대한 칭찬은 감사하지만 캐릭터의 성장과 발전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시청자에 대한 작은 당부를 내놨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윤아 “조정석 오빠와 콤비플레이 기대하세요”

첫 주연영화 ‘엑시트’ 31일 개봉 비상사태서 처절한 생존기 그려



윤아

윤아가 그룹 소녀시대의 울타리를 벗어나 영화 주연의 확고한 자리를 다진다. 31일 개봉하는 ‘엑시트’를 기점으로 연기자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 데뷔작 ‘공조’로 과시한 가능성 위에서 이번엔 더욱 제대로 실력과 매력을 과시한다.

‘잔내’ 풍기는 재난영화 주역으로 나선 윤아는 상대역 조정석과 더불어 유독가스가 퍼진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인물로 이야기를 이끈다. 유쾌하면서도 코골 짙은 문물함까지 갖춘 영화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17일 서울 용산OGV에서 시사회를 연 ‘엑시트’(감독 이상근·제작 외유내강)는 현실 공감 재난영화의 탄생을 알렸다. 윤아는 최준생 용남(조정석)의 대학 클라이밍 동아리 후배이자 짝사랑 상대. 용남 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재회한 둘은 갑작스럽게 닥친 가스 테러에

맞서 고층빌딩 옥상을 넘나들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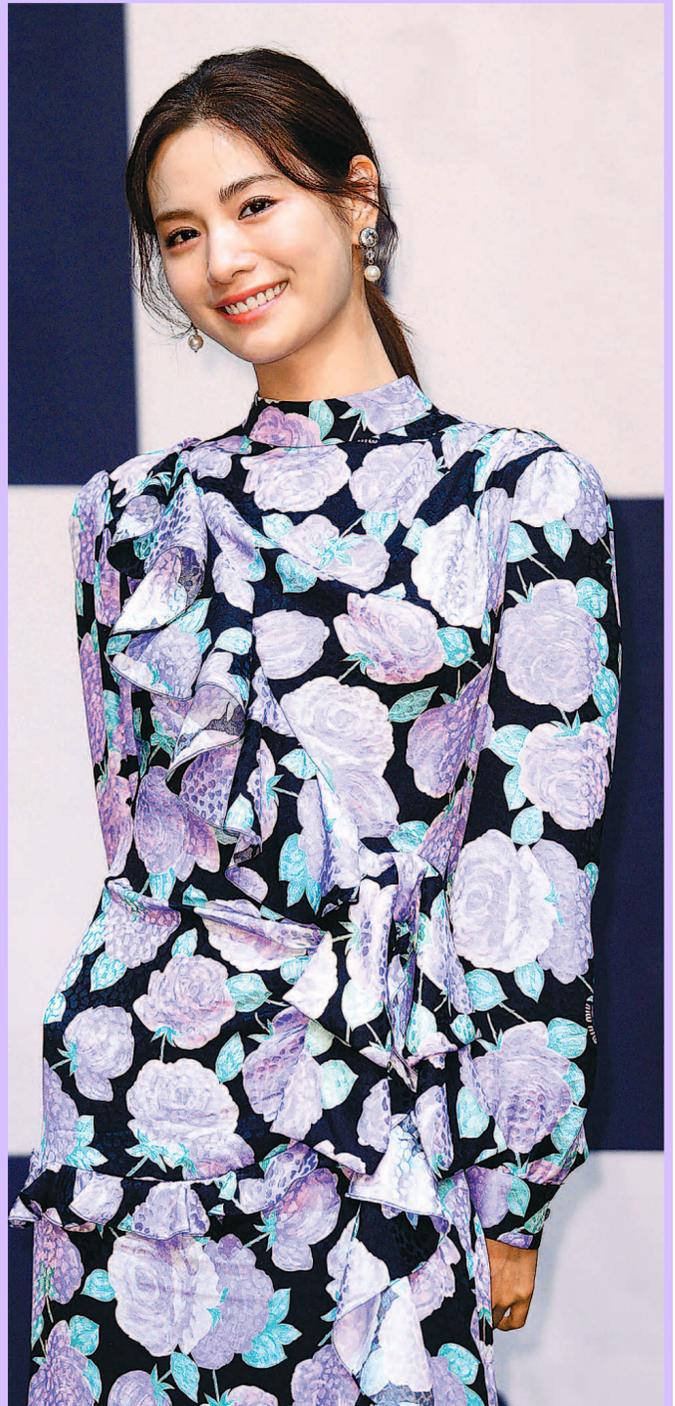
윤아는 “주연이지만 비중을 떠나 ‘현장에서 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돌아섰다.

재난 직후 모두 우왕좌왕할 때 명민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인물은 윤아가 연기한 의주다. 때때로 인간미 넘치는 모습도 보여준다. 구조 헬기의 자리를 양보한 뒤 돌아서서 “나도 살고 싶다”며 영영 울거나, 온 몸을 재활용 봉투로 감싸고 가스를 뚫고 뛰는 모습까지 코믹 연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다. 조정석과 콤비플레이도 유쾌하다.

윤아는 ‘엑시트’로 극장가 빅시즌 대전에 도전했다. ‘나랏말싸미’를 비롯해 ‘사자’ ‘봉오동 전투’와 흥행 대결을 앞두고 있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이날 시사회를 통해 작품의 매력에 확인된 만큼 윤아의 앞길은 전망이 밝아 보인다. 이혜리 기자 gofi0124@donga.com

연예현장.jpg

활짝 핀 나나 “저스티스, 본방사수 하세요”



가수 겸 연기자 나나가 17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주연 드라마 KBS 2TV ‘저스티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